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9/12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계 22:1-2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롬 8:10-11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당신의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입어 때맞추어 도움을 얻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매분마다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매년, 매주, 매일, 매시간 필요할 뿐 아니라 매분마다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매분마다 필요하다. ... 따라서 나는 계속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매분마다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은혜로우시 다는 것과, 당신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가 당신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은혜에는 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필요를 채워 줄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맞설 수 없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라 불리는 곳이 있다.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8 장, 4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의심할 것 없이 히브리서 4 장 16 절에 언급된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계 4:2).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한 권위의 보좌이다(단 7:9, 계 5:1). 그러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덮개(시온좌, 출 25:17, 21)로 상징되었다.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기도 하다(계 22:1).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히브리서 4 장 12 절에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베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시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히 4:16 각주 2)

로마서 5 장 17 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자아와 모든 주변 환경들을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개를 다스리기는 쉬운 것이다. 개는 매우 순종적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자녀는

어떤가? ... 아이들은 다른 여러 말들을 배우기 전에 “싫어요.”라는 말부터 배운다. ... 우리가 자녀들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없다면, 어떻게 왕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부모들인 이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얻음으로써 자녀들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다스려야 하고, 사탄을 다스려야 하며,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해야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로마서 5 장 17 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21 절은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와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 이르게 하려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을 위하다(for)’를 의미한다.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42-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20, 22-24 장;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11 장

9/13 화요일

아침의 누림

갈 5:16-17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17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 5:18, 24-25

18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히 7:22, 25-26

22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26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롬 8:13-14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묘사된 타락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행하신 일을 매우 긍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창세기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첫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자신의 혼을 지나치게 사용했다. ... 세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타락한 몸을 악하게 사용하여 육체가 되었다(창 6:3).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강하고도 사악한 원수가 우리의 육체임을 계시한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육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용납하실 수 있지만, 육체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분께 모욕이다. 세 번째 타락의 때에 인류 전체는 육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종 노아에게 그분께서 온 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8 장, 404 쪽, 27 장, 400-40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육체와 그 영의 다툼을 묘사한다(갈 5:17...).(출 17:8 각주 1)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해 싸우면 그 싸움에서 우세했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롬 8:34 하...), 여호수아는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이스라엘은 만나(출 16 장)와 생수(출 17:1-6)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또 모세가 손을 들어 주고 여호수아가 싸워 줌으로 써 아말렉 사람들을 패배시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또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싸우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써(롬 8:13...) 육체를 이긴다.(출 17:11 각주 1)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하늘들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손이 무거워진 모세는 우리를 나타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도 땅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딤후 2:8). 육체는 결코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손은 자주 무거워진다. ...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의미하는 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약하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킨다(비교 요 15:5 하). 대제사장인 아론(출 28:1...)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고,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훌(출 31:2)은 왕권을 상징한다(창 49:10). 제사장 직분은 지성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의 체험에서 지성소는 항상 우리의 영과 관련된다(히 10:19...).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유지하고 그 결과 육체를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제사장 직분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권위, 그분의 왕권 아래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더욱이 훌은 성막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데(출 31:2-5), 출애굽기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성막의

건축이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우리의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출 17:12 각주 1)

우리는 또한 싸우시는 영과 함께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써 아말렉에 대항하여 싸운다(롬 8:13, 갈 5:17, 24). 로마서 6 장 6 절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다. ...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육체를 죽음에 넘길 담대함과 격려를 얻는다.

로마서 8 장 13 절에 따르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것은 그 영께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원하여 일하려고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7 장, 582-5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6-48 장;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42 장

9/14 수요일

아침의 수련

요 1:17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 84:11-12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 여호와께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2 오, 만군의 여호와와함!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엡 6:11, 13, 18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렘 17:7

7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노아는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사악한 세대에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와 조부모는 그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쳤고,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세기 6 장 3 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께서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시고 나서 사람과 다투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노아는 필수적인 협력을 했으며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은 약한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설 수 없는가?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안에서 그 상황에 맞서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여러분이 창세기 6 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이 장의 은총, 곧 은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노아의 힘이요 능력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에게 주신 어떤 것을 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누렸다.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곧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세대 가운데서 노아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강하게 하시려고 오셔서 그와 함께 서셨고 그를 붙잡아주셨다. 노아가 입은 것은 은혜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8 장, 407-40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 나는 감히 신문도 보지 않는다.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다. ... 여러분이 라디오와 회사와 학교에서 듣는 말들은 악하고 부패했으며 마귀적 이다. 타락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서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음란하다. 음행과 부도덕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도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 세대에서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 우리 모두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과 똑같은 악한 본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께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임재 없이는 일하러 갈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으며, ... 백화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부축하시고 붙잡아주십시오.”

이혼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다. 유혹은 밖에 있고, 정욕은 안에 있다. ... 우리 중 누구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날의 노아가 되게 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직 은혜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할 수 있다.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시대의 조류, 흐름, 경향은 너무나도 강하다. 사람들은 마치 이혼하지 않으면 현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필요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노아는 은총, 즉 은혜를 입었으며, 우리 또한 은혜를 입어야 한다. 노아가 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학교에 있는 자녀들을 걱정한다. 아이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은 마약이다.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마약 중독자가 있다. 얼마나 비참한가! 어린아이들은 이런 유혹에 저항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중독은 없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은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8 장, 408-4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트림지, 12 권, 12 호, 영문판, 1233-1236, 1240-1247 쪽

9/15 목요일

아침의 누림

창 6:8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요 1:16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엡 2:10
10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5:17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8:9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 20:32

32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골 3:16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 앞에 은총, 즉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상황을 바꾸었으며 시대를 전환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다! 패배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와는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다. 그것은 전환점이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읽어 본다면, 매 시대에 사탄이 있는 힘을 다하여 상황을 손상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된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 보라. 비록 그들이 밀바닥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타락했지만, 그때 대적을 심히 놀라게 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한 명 있었다. ... 다니엘서에는 ‘그러나 다니엘은’(1:8)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6 장 8 절에서도 ‘그러나 노아는’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타락 그 끝에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다.

교회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출되었다. ... 현재의 상황은 교회가 얼마나 심히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목표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비록 사탄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길을 갖고 계신다. 모든 패배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시려고 각 지방에 교회들을 일으키셨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9 장, 4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이다. ... 사탄은 오늘날 ...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이다. 이 세 가지 큰 원수는 우리의 육체라는 집회 장소에서 계속 함께 집회하고 있으며, 그들의 집회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다. ... 육체가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것처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4 장 16 절에 따르면, 우리는 때맞추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그것은 주로 육체 때문이다. ... 나는 사람이 겪는 모든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육체 안에 있는지를 깨닫는 데 이르렀다. 비록 내가 육체 안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육체는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님께 미쳤을 때, “주님, 제 육체를 왜 가져가시지 않습니까?”라고 말씀 드렸다. 결국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육체가 필요함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육체는 바로 나를 은혜의 보좌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가는 것뿐이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인 은혜의 보좌가 있다.

육체는 바로 사탄의 임재이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 비록 육체가 사탄의 임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에 저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 여러분은 사탄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 ... 비록 사탄이 우리보다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시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다. 사탄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함께 계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대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께서 오셔서 그에게 맞서서 저와 함께 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 주실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육체를 가져가신다면 우리 중에 필사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을 아신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가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아시고 육체를 남겨 두셨다. 밤낮으로 육체는 우리가 돌이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곧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육체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육체야,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는 사라져도 된다.” 생명의 성숙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육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를 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가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8 장, 411-41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7-29 장

9/16 금요일

아침의 누림

시 133:3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요 6:50-51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히 10:25

25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살전 5:11

11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 오던 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축하십시오.

히 3:13

13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편 133 편 3 절에 의하면, ‘하나’는 ...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리는 이슬과 같다. 바르는
기름은 인격인 아론 위에 있지만, 이슬은 장소인
시온에 있다. 이슬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벧전 3:7). 생명의 은혜는 생명의
공급이다.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기름바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공급 곧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는 기름이 발라질 때 또한
은혜를 받는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없애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 주님은 그분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바울의 가시를 없애기보다
바울에게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6 장,
431-4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기름바름, 곧 ‘페인트칠’을 체험한다.
동시에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은혜로,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생명 공급으로 누린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형제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자매는 남편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다. 시온의 산들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관유를 받는 단체적인 인격으로서의
교회의 중요성과 이슬이 내리는 장소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이 두 방면에 있어서 교회와
분리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기름바름에
참여할 수 없고 이슬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게
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생활에 대해
이러한 간증을 하는 우리를 비판할지도 모른다.
... 그러한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한, 교회생활 밖에서도 주님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
물론 우리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이 은혜의 정도는 교회 안에서
받는 은혜만큼 그렇게 달콤하거나 풍성하거나
힘이 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집회가 높든지 낮든지, 풍성하든지
풍성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집회에 올 때마다
관유와 이슬을 체험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집회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보호받는다. 그러나 교회생활과 분리된
사람들은 은혜의 총만한 공급에서 끊어진다.
주님의 긍휼에서 떠날 때, 그들은 얼마 후에
자신이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보호받는다. 왜냐하면 이슬은 여전히 시온의
산들에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집회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는 적시는 이슬 아래
있게 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7 장, 446-447 쪽)

우리는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 서로에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올바를 수 있다.
은혜는 의를 산출한다. ... 그러므로 로마서 5 장

21 절은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의와 은혜는 항상 함께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의롭다. ... 의는 노아에게만 자량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의는 하나님께도 자량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에게 자랑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그 세대에게 노아의 의를 자랑하실 수 있었다.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시의 경건하지 않은 세대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견고한 입지를 얻으셨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8 장, 4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2 권, 하나라는 진정한 터, 6-7 장*

9/17 토요일

아침의 누림

히 11:7

7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판결 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빌 2:12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엡 4:11-16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3:9-10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10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의 시(詩)이다(엡 2:10 상).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하늘들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시가 아니다. 그보다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의 시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전시한다(엡 2:7). ... 이 은혜는 풍성하고 넘치며 번성하고 증가하고 있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9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노아가 이루어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곧 방주였다(창 7:7). 방주는 실지적인, 현재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 노아에게서 보는 그림에 따르면, 우리는 역사 속의 그리스도나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이시며,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이 방주를 건축하고 있다. ... 오늘날의 노아들인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할 필요가 있다. 노아 또한 그가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 ... 노아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세대 가운데 의인이었다(창 6:9). ...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방주를 건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더 전진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다.

빌립보서 2 장 12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짧거나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긴 과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통과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안에 있다. ... 지금 우리는 이 통로를 통과하고 있으며,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통과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이루어 낸 것 안으로 들어갔다(창 7:7). ...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우리가 건축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낸다면, 주일에 우리는 분명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실지적인, 현재의 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해도 그분의 임재가 없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는 계시지만 체험적으로는 계시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할지라도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건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방주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매시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분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건축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2 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3 장, 236-23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2 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2-3 장

2022. 9. 12 ~ 2022. 9. 18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1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2-24 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6-48 장;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27-29 장

9/18 주일

아침의 누림

엡 1:3-12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위가 용서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찬송: 770 (英)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中:557)

- 1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 2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 3 주의 영 안에 함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 안에 함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수 근원 만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수 근원 만지네.